

페르시아灣 事態와 제3의 석유위기

白 根 旭

〈外大 中東問題研究所 연구원〉

I. 머리말

최근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위기사태는 제3의 석유위기 到來가능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1980년에 시작되어 무려 7년간 지속되고 있는 局地的 消耗戰(War of Attrition)은 이제 美·蘇의 페르시아만 지역에 대한 武力 介入의 빌미를 제공하는 상태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즉, 세계 최대의 석유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기사태가 경우에 따라서 中東石油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自由西方세계 산업국가들에게 또다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가정을看過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이 글에서는 과연 가까운 장래에 제3의 석유위기가 도래할 것인가? 만약 제3의 석유위기가 현실화된다면, 그것은 종래의 석유위기와는 본질적으로 얼마나 性格을 달리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 어디서 그러한 위기사태의 징조가 대두될 것이며, 그에 대한 美·蘇의 대응전략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제3의 석유위기

1970년대에 걸쳐 두차례 쓰라린 석유쇼크를 경험했었

던 우리들은 1980년대 후반에 돌입한 지금에 이르러서는 70년대의 1·2차 석유위기와는 본질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석유위기의 도래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단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1·2차 석유위기는 석유수요가 석유공급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을 간파한 產油國들의 석유공급조작과 석유소비국들의 假需要를 대비한 事前備蓄으로 인해 초래되었다. 그러나 최근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에 관한 美國 및 국제에너지기구(Int'l Energy Agency : IEA)의 우려와 蘇聯의 石油 現實을 살펴보면, 가까운 장래에 또다시 초래될 수 있는 석유위기는 종래의 그것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다.

美國의 에너지장관 존·헤링턴은 가까운 장래에 또다른 석유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최근 경고했다. 이는 美國의 石油産業은 감소되고 있는 반면, 석유수요량은 증대되고 있는 까닭에,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2년 내지 5년 내에 美國이 석유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美國 내무장관 호들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다. 美國內 책임있는 당국자의 이같은 발언은 美國의 時事週刊誌 「Time」이 최근호(1987년 3월 16일자)에서 美國의 개발비용부담이 큰 美國內 석유개발을 통한 석유공급을 회피하고, 석유공급 과잉현상에 따라 초래된 油價하락에 편승하여 海外石油輸入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불원간, 아마도 1990년대 초반

에 제3의 석유위기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경고한 것과 거의 때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또한 IEA전문가들은 보다 근원적으로 原油需給構造 자체가 갖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들은 西方 세계 선진국들의 경제성장에 따라 石油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非OPEC산유국들의 에너지공급능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西方세계 선진국들이 油價하락을 계기로 그동안 기울여왔던 대체에너지 개발노력을 축소하고, 新油井試錐計劃을 크게 줄여버렸기 때문에(1981년 新油井試錐件數가 4,530件에 달했던 것이 1986년에는 700件에 불과했음) 非OPEC 산유국들의 에너지공급능력이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지적했다.

蘇聯의 경우, 石油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OPEC의 결집력 와해로 야기된 油價하락과 蘇聯 자체내의 석유생산량 감소는 蘇聯의 海外外貨收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석유 수출대금으로 필요로 하는 西方세계의 최신 기술 및 장비를 도입해 온 蘇聯經濟의 바탕을 뿌리에서 흔들어 놓고 있다. 더우기, 蘇聯의 석유생산에 있어서 절대적인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西시베리아에서의 석유생산이 결정에 달한 상태에서 下降되는 국면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蘇聯의 석유생산은 1983년에 최고 6억1천6백3십만톤을 달성하고 나서 1985년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計劃期間 목표수준을 훨씬 밑도는 5억9천5백만톤에 불과한 실적을 나타냈다.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蘇聯의 11차 5개년 계획기

기술과 물자를 수입해오던 蘇聯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蘇聯이 당면하고 있는 이같은 석유현실은, 代案의인 東시베리아의 석유개발이 石油하부구조의 미비, 혹독한 기후조건, 고도의 개발기술 및 장비의 부족, 그리고 개발되는 석유의 수송에 따르는 엄청난 경비로 인해 蘇聯으로서의 가까운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낙관적인 것이 될 수 없다.

이상에서처럼, 한편으로 美國의 석유장래에 대한 우려가 中東石油의 西方세계로의 자유로운 흐름을 美國의 국가이익(Vital Interest)과 직결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페르시아만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美國의 단호한 입장을 더욱 강화하게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地政學上으로 中東國家임을 자처해오는 蘇聯이 대내적 석유문제의 타결을 위해 中東石油의 실질적인 수요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음을 고려해 볼 때,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이란·이라크 전쟁에 따른 위기사태의 고조로 야기될 수 있는 美·蘇의 페르시아만 지역에 대한 무력개입가능성은 더 이상 가상의 시나리오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될 수 없다.

석유문제에 관한 한, 美國을 포함해서 어느 국가도 孤島가 될 수 없다는 호간(William W. Hogan)의 지적처럼, 中東石油에 대한 美·蘇의 입장은 결코 방관적일 수 만은 없다. 제3의 석유위기는 이러한 시각을 전제로 고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제3의 석유위기의 실마리는 반드시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제공되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표-1> 蘇聯의 石油生産

(년간 : 백만톤)

연도	계획기간 원래목표	수정목표	실제생산
1981		610	608.8
1982	620	614	612.6
1983	}	619	616.3
1984	645	624	612.7
1985		?	595

간인 1981~1985년 사이에 한번도 목표가 초과달성된 해가 없다. 石油輸出을 통해 國際收支面에서 1984년에 40억 달러의 흑자를 냈던 蘇聯은 1985년에 이르러 油價하락과 생산량감소로 말미암아 60억 달러의 적자를 감수해야 했다. 게다가 달러화의 급격한 評價切下는 주로 西歐通貨로

III. 이란·이라크戰과 페르시아만 위기

1980년 9월 21일 이라크의 對이란 先制攻撃으로 시작된 이란·이라크전쟁이 마침내는 전세계 原油의 6분의 1이 이동하는 페르시아만의 길목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을 봉쇄하려는 국면에 이르게 되었다. 이란·이라크 전쟁은 최초에는 1979년 이란의 샤(Shah)의 没落으로 말미암아 이라크의 사담·후세인 대통령이 1975년 이란과 맺은 國境條約이 不平等條約이라고 선언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파괴하면서 이란과의 紛爭地域인 샤프 알 아랍(Shatt-al-Arab)水路와 호르무즈 해협입구에 위치한 조그마한 3개 섬에 대한 이라크의 權利를 주장하면서 勢力空白(Power Vacuum)이 생긴 페르시아만 지역에 대한 霸權(Hegemony)쟁탈전을 제기한 局地戰에 불과했다. 그러나, 時

間이 경과하면서 혼란이 가중되던 이란·이라크 간의 國力消耗戰이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으로 인해 페르시아만 지역의 안보전망을 점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지고 있다.

이란의 호연대로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면, 어떠한 사태가 초래될 것인가?

페르시아만 지역의 길목에 위치한 폭 38km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출되는 원유량이 1984년 현재 하루 740만 배럴이며, 이 가운데서 北美地域行이 60만 배럴, 西歐地域行이 230만 배럴, 태평양地域行이 200만 배럴, 그리고 기타地域行이 250만 배럴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조치는 실제로 自由西方세계 산업 국가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1970년대에 야기되었던 1·2차 석유위기시 석유공급부족량이 1차 위기시에 전체 수요량의 10%인 하루 450만 배럴, 2차 위기시에 전체 수요량의 5%인 하루 250만 배럴이었다는 점을 상기에 본다면, 1985년 현재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출되는 페르시아만 지역 산유국들의 원유량 하루 176만 배럴을 제외하고도 순수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출되는 하루 604만 배럴에 달하는 석유공급이 遮斷될 경우의 석유위기사태는 전세계 석유소비국들에게 가공할만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갖는 중요성은 이 세기말까지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 IEA의 未公開報告書에 따르면 1985년 현재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의 전체 석유수출량의 22%(하루 176만 배럴)에 해당하는 石油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외부세계에 공급되어 지고 있는데, 1995년에 이르러서는 전체 석유수출량의 57%에 해당하는 하루 900만 배럴에 달하는 石油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출될 것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수출의 비중은 그만큼 감소될 것이 예상된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의 석유수출량이 1990년에 하루 약 420~540만 배럴, 2000년에 이르러서는 하루 약 490~690만 배럴에 달할 것이라는 IEA전문가들의 전망이 이같은 가정을 뒷받침하여 준다.

다니엘스(D. A. Daniels)는 최근(87. 5. 28) 뉴욕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수출량이 하루 400만 배럴 이하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는데, 이같은 현상은 페르시아만 지역의 위기사태 고조로 인해 야기된 잠정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 진다. 더우기, 앞서 언

급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수출의 비중이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실현된다고 해도, 호르무즈 해협이 페르시아만 지역의 주요 석유수출통로로서의 役割을 계속 수행할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현지점에서 혹은 가까운 시일 내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사태가 유발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제3의 석유위기를 초래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고의적 혹은 돌발적인 계기를 통해 실현되어 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데 문제의深刻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1987년 3월 이래로 이란은 페르시아만 입구 호르무즈 해협 연안에 위치한 쿠헤스타크 섬과 케심 섬에 蘇聯製 SSN2 미사일(일명 STYX 미사일)을 개조한 中共製 HY2 地對艦 미사일(실크웜(누에)이라는 別名을 갖고 있는 이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80km이며, 450kg의 폭약탄두를 적재할 수 있는데, 이는 美國 군함 스타크(Stark)號를 격침시켰던 엑조세 미사일(탄두의 3배 무게에 해당한다)을 배치하였으며, 그를 통해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의 오만灣에 「차단벨트」를 형성하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들을 국적에 관계없이 遮斷하여 석유수송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란의 이러한 조치는 이란·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이래 이란이 이라크에 대해 타격을 가하기 위해 취한 조치 가운데서 가장 위협적인 그것이지만, 中東石油에 死活的인 이해관계를 갖는 西方산업국가들 뿐만 아니라 美國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페르시아만 지역의 위기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美國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페르시아만의 위기사태는 국지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그것은 페르시아만 위기사태에 대한 美國의 軍事力 行使決定은 곧바로 蘇聯의 무력개입을 초래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987년 4월 이란 해군고속정이 부설한 機雷로 인해 蘇聯 유조선 마셜 추코프號가 폭발했던 사실은 이란이 星條旗를 단 쿠웨이트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美國의 호위군함에 대한 공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비록 페르시아만 위기사태에 대한 美·蘇의 반응을 예견하면서도 이란이 이같은 단안을 내린 것은 페르시아만 위기상황의 종식 내지 극복을 위해서 이란으로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앞으로도 그 결정을 고수할 수 밖에 없는 현

실이다. 이란·이라크 전쟁의 지속을 위해서 兩國은 石油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1984년 3월 이라크가 이란의 석유수출항인 하르그 섬을 드나드는 민간선박에 대해 무차별 폭격을 가하면서 油槽船戰爭(Tanker War)을 개시한 이래로 이란·이라크의 석유수출은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1984년 6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일쪽에 制限區域(Exclusion Zone)을 선포하고 나서는 석유수출이 兩國간의 戰爭勝敗를 결정지을 수 있는 주요 변수로 인식되어졌다.

이에 이라크는 送油管을 통해서 인접 쿠웨이트나 사우디 아라비아를 통한 간접적인 석유수출을 모색했다. 이라크의 석유수출이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경우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이란의 쿠웨이트 油槽船 공격은 어쩌면 終戰을 모색하는 이란의 최후의 선택일 수도 있다. 또한 이란의 이같은 결정이 페르시아만 위기상태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이라크 공군기가 발사한 엑조세 미사일에 피격된 美군함 스타크號 사건 이후 美國이 보여준 대응자세와 油槽船의 안전운항을 위해 도움을 청한 쿠웨이트에 대한 蘇聯의 즉각적인 반응 등은 美·蘇의 페르시아만 위기상태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란·이라크 전쟁은 페르시아만 지역의 전통적인 勢力均衡體制를 붕괴시키는 국지적인 사태로 종결 지워지기 보다는 오히려 超強大國의 페르시아만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의 場을 제공할 것이라는 가정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만약 中東石油을 목표로 하는 美·蘇의 對페르시아만 軍事力 개입이 현실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종래의 석유위기와는 본질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최악의 석유위기가 될 것이다.

IV. 石油와 軍事力 행사

1. 美國의 選擇

1970년대에 나타났던 것과 같은 석유수급질서의 붕괴에 의해 초래되는 위기상태는 본질적으로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이 봉착하게 되는 정치 및 경제적 제약요인으로 말미암아 限界性을 갖기 때문에, 이 경우 武力使用은 협사리 선택될 수 없는 대안에 속한다. 반면, 최근 페르시아만 사

태에서와 같이 美國의 군사적 개입이 돌발적인 상황에 의해서든 불가피한 선택에 의해서든 심각하게 고려되어져야 할 경우, 美國의 군사적 선택은 석유시장질서를 붕괴시키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매장량을 보유한 油田地帶의 장악 및 유지를 목표로 해야 한다. 그것은 페르시아만 지역문제에 대한 美國의 군사적 개입을 반대하는 中東의 여타 산유국들이 美國에 대해 가할 수 있는 압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석유매장량을 보유한 油田地帶을 美國이 장악하지 못할 경우, 美國의 선택은 지역세력균형을 파괴하는 의미없는 도발행위로 간주될 것이며, 또한 역사적으로 南進政策을 추구해 오면서 세력팽창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蘇聯에게 부담없는 武力介入의 구실을 제공하게 될 뿐이기 때문이다.

페르시아만 사태에 대한 美國의 군사력 행사가 실현되면, 撤收라는 難題가 제기된다.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이 갖는 군사적 취약성과 석유시설들이 갖는 극도의 취약성이 美國의 撤收後 재난이 야기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美國에게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력 행사를 통한 페르시아만 위기상태에 대한 美國의 본격적인 개입은 장기간에 걸친 占領이 시작됨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中東石油의 중요성이 부각된 이래 최근까지 中東石油장악을 위한 초강대국의 무력개입이 행해진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선택에 따르는 구체적인 代價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답이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상황하에서 美國의 페르시아만 지역에 대한 군사적 선택을 찬성하는 자들은 페르시아만 지역에는 어떠한 실질적인 인구중심지도 없고, 밀집지대도 없는 까닭에, 페르시아만 지역을 장악하는 것은 결코 베트남에서의 경험과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石油掌握(Oil Grab)의 구체적인 목표대상은 美國의 국경보다는 蘇聯의 국경에 훨씬 가깝게 위치하고 있지만, 그 목표지역들이 蘇聯領土로부터도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와 결단의 균형에 있어서는 美國이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蘇聯이 페르시아만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看過하고 있다.

그러나, 美國의 선택에는 신중함이 수반된다. 蘇聯의 잠재적 반응, OPEC의 반발, 아랍 및 회교국들의 반발, 그리고 西方동맹국들의 비난 등은 美國의 군사적 선택을 실행에 옮길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다. 특히, 소련의 잠재

적 반응은 美國의 군사적 선택을 철회시키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수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美·蘇의 직접적인 군사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이 看過될 수도 無視될 수도 없는 것은 페르시아만 石油의 중요성이 전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美國의 페르시아만 사태에 대한 군사력 투입결정은 두 가지 중대한 문제를 제기시킨다. 그 하나는 페르시아만 지역에 대한 무력개입결정이 美國의 전략예비군을 페르시아만 지역에 집중시키게 함으로써 美國의 군사적 유연성을 심각하게 제한시킨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蘇聯이 남부 군사지역에 군사력을 증강시키게 하는 필요성을 美國의 선택이 제공하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美國의 선택을 보다 신중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즉, 페르시아만, 특히 이란이 당면한 상황이 악화되어 외부세력의 간섭을 초래하는 국면에 이르게 되면, 蘇聯이 그들의 군사력을 남으로 확장시키고 동시에 美國의 군사행동으로부터 자국의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구실을 내걸고 이란의 북서부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예상이 현실성을 갖는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美國은 선택에 임하게 된다.

따라서 美國의 페르시아만 지역에 대한 군사력 행사는 반드시 돌발적인 사태가 제공할 수 없는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진 뒤에 내려지는 최후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2. 蘇聯의 선택

페르시아만 지역에 대한 蘇聯의 국가이익은 페르시아만에서의 석유발견 보다도 시기적으로 앞서며, 石油은 남부지역에 대한 蘇聯의 관심을 끄는 여러가지 이익들 중 하나에 불과했다. 단지 최근에서야 石油統制에 대한 욕구가 蘇聯의 國家目標目錄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것은 蘇聯이 당면한 석유사정과 석유수급체제에 혼란이 초래된 전세계 石油現實이 蘇聯으로 하여금 석유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켰기 때문이다.

페르시아만 지역에 대한 蘇聯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만 지역은 蘇聯의 안보우선순위 서열에 있어서 유럽, 中共, 다음의 세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蘇聯이 페르시아만 지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페르시아만에서의 蘇聯의 어떠한 이익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국경지역을 따라 배치시켜 왔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더우기, 蘇聯이 방어적 목적으로 배치한 군사력 조차도 석유흐름에 증대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은 蘇聯이 페르시아만 위기사태에 의해 제공되어 질 수 있는 군사적 개입문제를 결정짓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작용한다.

地政學的으로 中東國家임을 자처해온 蘇聯은 페르시아만 지역, 특히 이란에 대한 武力介入의 역사적인 토대를 마련했었던 까닭에 실제로 군사력 행사에 있어서는 美國보다 유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920년에 레닌은 이란에서 英國의 지위를 격하시키기 위해, 그리고 이란으로부터 작전을 전개하는 백계 러시아 군대에 대한 英國의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이란 북부지역에서 創設된 「길란」(Gilan) 사회주의 공화국을 지원했다. 1920년 레자 칸(Reza Khan)이 테헤란에서 쿠데타로 집권하게 되자 모스크바는 길란(Gilan)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주로 테헤란에서 英國이 존재할 수 있는 어떠한 구실도 주지 않기 위해 새로 옹립된 이란정권과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의 5.6조항에서, 蘇聯은 이란領土를 蘇聯을 위협하기 위한 기지로 활용하려는 외부세력이 있을 경우, 이란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根據를 마련했다. 이란이 1921년 協定이 무효라고 선언하고 난 뒤에도 蘇聯이 그 協定の 5.6조항이 계속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마도 이란에 대한 미래의 어떠한 군사행동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함 때문이다.

최근 고조되고 있는 페르시아만 위기사태가 蘇聯으로 하여금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완전하게 보장해 줄 때, 蘇聯은 1921년 협정의 5.6 조항을 근거로 무력개입을 실행에 옮길 것이다.

1946년 蘇聯은 이란으로부터 에너지 채굴권을 확보해 내기 위해서, 또한 蘇聯남부지역에 충분한 緩衝地帶(Buffer Zone)를 획득하려는 목적으로 이란의 아제리(Azeri)와 쿠르디쉬(Kurdish)지역을 점령했었다. 비록 美國의 압력에 굴복하여 같은 해 후반에 철수는 하였지만, 蘇聯은 이란으로부터 석유채굴권을 부여받은 후에 비로소 철수했다. 이 같은 역사적 前例에서 나타난 것처럼, 蘇聯은 상황변화에 따른 기회선택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동성을 과시하고 있다.

만약 침략이 정당화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蘇聯의 이란에 대한 무력침략이 유발된다면 그 침략은 의미없는 도발행위가 될 것이지만, 1979년 蘇聯이

아프카니스탄에 대해 恣行한 군사침략은 蘇聯이 이란에 대한 우회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최소한 蘇聯의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사력 이동은 蘇聯의 對이란침략의 중요한 동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거점을 구축하는 소련군대는 페르시아만 지역에 대한 美國의 군사적 위협을 견제하고, 美軍 보급품의 수송을 차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프카니스탄의 남부지역에서 감행되는 蘇聯의 군사작전은 이란의 북부지역에서 전개되는 그것보다 美國의 공군력, 소위 항공모함을 기지로 한 공군에 훨씬 근접한 곳에서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蘇聯은 美國對應의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하든지, 美軍과의 정면충돌의 위험을 수용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프카니스탄으로부터 전개되는 蘇聯의 군사작전은 관련되는 거리로 인해 兵站問題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소련으로부터 직접 전개되는 이란 북부지역에 대한 蘇聯의 군사작전보다 蘇聯에게 크게 매력적으로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 소련의 목표가 이란에서의 혼란을 이용하고, 소련의 남부 국경지역 외곽에 완충지대를 획득하는 것이라면, 소련은 군사작전을 실시하는 것에서 보다 훨씬 많은 활동의 여지를 갖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소련의 능력이 페르시아만 주변에서의 적극적인 군사행동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蘇聯을 자극하는 것은 페르시아만 지역의 혼란에 대한 사려깊은 관심과 페르시아만 지역에서의 美國의 세력증강임을 감안해 볼 때, 蘇聯은 가장 유리하고 확실한 시기에만 군사적인 행동을 선택할 것이다.

V. 蘇聯의 군사위협과 美國의 대응전략

1. 蘇聯의 군사위협

페르시아만 지역에 대한 蘇聯 군사력 행사의 궁극적인 대상지역은 이란이다. 蘇聯의 對페르시아만 지역, 특히 이란에 대한 군사위협의 관심은 주로 蘇聯의 남부 국경지역을 따라, 즉 북카프카즈(North Caucasus), 트랜스카프카즈(Trans Caucasus), 그리고 터키스탄(Turkistan)군사지역과 아프카니스탄에 배치된 지상군 및 공군으로부터 야기된다. 美國 國防省에 따르면, 蘇聯의 남부 국경지역에는 아프카

니스탄에 투입되어 있는 약 10만 5천명을 포함한 29개 사단이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蘇聯이 이들 군사지역에 투입하고 있는 군사력의 전투준비태세에는 차이가 있다. 그것은 아마도 蘇聯이 어느 線까지 진격해 가기를, 얼마나 많은 부대들을 투입하기를, 그리고 어느 정도의 抵抗에 對處하는 것을 기대하는가에 의해 실질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페르시아만 지역에 대한 蘇聯의 군대투입능력의 核은 空挺사단(Airborne Division)이라고 볼 수 있다. 蘇聯은 모두 8개 공정사단을 보유하고 있는 데, 훈련부대 1개 사단, 아프카니스탄에 투입된 1개 사단, 그리고 신속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준비태세가 갖추어진 6개 예비사단이 그것이다. 이 사단들은 자동화 보병사단병력 12,000명에 비해 8,500 명으로 병력규모면에서는 비록 정규부대 보다도 훨씬 작지만, 공수된 부대들에 제공할 수 있는 가공할 만한 火力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완벽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공정사단들의 수송을 위해 사용가능한 항공기는 <표-2>에 나타나 있다. <표-2>에 기재된 항공기

<표-2> 소련군 수송기

항 공 기	보유 대수	항속거리 (현재시 mile)	최대적 재량 (ton)	부대 병력	낙하 산병
AN-12 (Cub)	500	750	22	90	60
AN-22 (Cock)	50	2,260	88	175	175
IL-76 (Candid)	130	2,850	44	140	140

출처 : Dennis M. Gormley, "The Direction and Pace of Soviet Force Projection Capabilities," Survival, 24 Vol. (November-December 1982), p. 272.

리와 적재량은 蘇聯의 공정사단이 실제로 페르시아만 주변의 어떤 주요지점에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아프카니스탄을 포함해서 蘇聯 남부 군사지역에 배치된 蘇聯 地上軍은 400대의 헬리콥터와 함께 모든 유형의 약 845대의 항공기를 페르시아만 지역에 대한 무력 사용시에 동원할 수 있다.

蘇聯의 주요 전투 및 공격기의 임무와 능력은 <표-3>에 나타나 있다. 이 항공기들의 행동반경은 실제적으로는 임무양태에 따라 달라진다. 蘇聯의 남부 국경지역에 위치한 키로바바드(Kirovabad) 및 아시하바드(Ashkhabad)기지와 아프카니스탄의 신단드(Shindand)기지로 부터 출격하는

(표 - 3) 소련공군력 : 임무와 능력

항 공 기	임 무	전투반경 (mile)	砲적재 (톤)
MIG-23 프로거 (Flogger) B	공중전투	525	2.2
MIG-27 프로거 (Flogger) D	지상공격 / 타격	600	2.2
SU-17 피터 (Fitter) C	지상공격 / 타격	600	3.0
MIG-21 피쉬베드 (Fish bed) J	공중전투	400	1.0
SU-24 펜서 (Fencer)	지상공격 / 타격	970	2.2
TU-26 백파이어 (Back fire)	항공후방차단 (중폭격기)	1,900	10.0

출처 : Robert P. Berman, *Soviet Air Power in Transition* (Brookings Institution, 1978), pp. 26, 32 ; and Jane's *All the World's Aircraft*, 1983-84 (London: Jane's Publishing CO., 1983), pp. 223, 240.

SU-24 펜서(Fencer)와 미그(MIG)23이라는 蘇聯의 주요 후방차단 항공기 및 전투기가 페르시아만 지역을 커버하는 데, 특히 펜서전투기는 페르시아만의 북부 최상단 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다.

蘇聯이 남부 국경지역에 배치한 이같은 군사력은 蘇聯이 당면하는 상황에 대한 蘇聯의 의도를 부과하기 보다는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해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부차적으로 간주되는 측면을 방어하기 위해 조직되고 배치되어 왔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근 蘇聯은 이란에 2백기의 地對地 미사일을 제공하고 그 代價로 페르시아만 지역국가와 파키스탄 및 이지역의 美해군동태를 감시하기 위한 전자정보수집소 2개소를 이란에 설치하는 등 페르시아만 위기사태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蘇聯이 앞으로 페르시아만에서 전개되는 사태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짐작케 한다. 즉, 蘇聯은 남부 군사지역에 배치된 군사력을 토대로, 페르시아만 위기사태가 제공하는 무력개입의 기회를 최대한 모색할 것이다.

이러한 기회탐색을 통해 무력위협을 현실화시켜도, 美國의 대응전략을 항상 염두에 두는 까닭에 蘇聯은 작전실시에 있어 상당한 치밀성을 부여한다. 실제로 蘇聯의 무력위협은 本土白體 내지 本土膨脹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蘇聯은 재래식 군사력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이러한 蘇聯의 군사위협을 본질적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蘇聯이 지향하는 군사원칙이 검토되어야 하고, 또한 蘇聯 군대가 이란에서 봉착하게 되는 작전환경이 연구되어야 한다.

蘇聯이 페르시아만 지역에 대한 무력개입을 감행할 시 전제가 되는 군사원칙은 기습작전에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기습작전에 대한 蘇聯의 군사원칙은 敵의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 火力를 집중시키고, 그후 목표물과 승리를 향해 전례없는 속도로 이동함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蘇聯 군대의 병참지원이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美軍의 그것과 비교시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이다. 蘇聯의 군사원칙이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은 戰場이 형성된 지역 내에서의 制空權 확보이다. 제공권의 확보없이는 전투목표를 달성하려는 蘇聯의 의도는 기습작전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체 군사작전에서도 크게 제한받게 된다.

이러한 蘇聯의 군사원칙이 실현에 적용된다고 해도, 蘇聯이 막상 군사작전을 전개해야 하는 작전환경은 그리 순탄하지 못하다. 蘇聯군대가 당면하게 되는 地形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험준한 지형에 속하는 일부 지형이 될 것이다. 기후 또한 극단적인 조건에 해당되며, 도로사정은 수준이하에 속한다. 반면, 蘇聯이 군사작전을 전개함에 있어서 전략적 중요성을 갖게 될 이란 서부지역에 構築된 석유하부구조는 蘇聯에게 유리하게 소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두개의 精油공장이 트랜스카프카즈(Trans Caucasus) 군사지역으로부터 남쪽으로 향한 통로를 따라 위치하고 있다. 타브리즈(Tabriz)에는 하루 8만 배럴의 정유처리능력을 갖춘 비교적 대규모의 정유공장이, 케르만샤(Kermanshah)에는 하루 1만 8천 배럴의 정유처리능력을 갖춘 소규모 정유공장이 위치하고 있다. 이들 정유공장의 장악은 蘇聯이 진격해 나감에 있어 再給油를 가능케 함으로써 蘇聯의 兵站問題解決에는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上記한 兵站的인 이점을 제외한 작전환경이 제기하는 제약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蘇聯이 이란에 대한 무력침략을 감행하게 된다면, 蘇聯의 이란 북부지역에 대한 공격은 美國이 페르시아만 지역에 대한 주요 거점으로 간주하는 印度洋상에 배치되어 있는 美國 항공모함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전개되어질 것이다. 이같은 蘇聯의 이란 북부지역에 대한 제한된 침략은 남부지역으로의 진출을 위한 前兆가 될 것이며, 설사 蘇聯이 제한된 침략을 통해 페르시아만 油田地帶에 대한 장악을 실행하지 않는

다고 해도, 蘇聯은 확실히 석유흐름에 대한 蘇聯의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蘇聯이 시도할 수 있는 제한된 침략은 美國의 군사계획이 감당해야 하는 가장 현실적인 최악의 시나리오에 속한다.

2. 美國의 군사전략적 대응

페르시아만 지역에 대한 美國의 대외정책은 이란에 대한 蘇聯의 세력범위확대를 최소화하고, 특히, 이란에 蘇聯 군대가 잔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즉, 美國은 蘇聯에 대해 이란이 전체적으로 美國의 국가이익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모스크바는 蘇聯陣營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이란의 행위를 이란에 대한 개입의 빌미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美國의 의지는 군사력과 군사전략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없이 外交 단독으로는 효과적으로 표출되어질 수 없다.

美國이 현실적으로 蘇聯의 이해타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전략은 蘇聯과 접해 있는 국경지역에서 이란이 독자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샤(Shah) 정권의 몰락으로 인해 美國이 공공연하게 방어전략을 수행하는 것은 힘들게 되었다. 따라서, 만약 蘇聯이 이란의 油井들을 장악하려고 모색한다면, 美國은 Trip-Wire(원래의 의미는 지뢰연결선이지만, 여기서는 有事時 이란의 最戰線에서 蘇聯의 군사침략을 잠정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모색되는 군사전술을 의미)전략을 고려할 것이다.

왜냐하면, 蘇聯이 이란의 북부지역을 장악하고 잠시 중단하면서 蘇聯의 방어적인 의도 및 제한된 목표들을 선언하고 그리고 美國의 존재를 去勢하기 위해 국내 및 국제적 압력을 유도하는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하는 동안, 美國은 Trip-Wire병력을 이란 북부지역 깊숙히 투입하여 蘇聯과의 충돌을 유발시켜 蘇聯의 행동을 억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美國의 이러한 구상은 蘇聯과의 협상을 위한 시간 및 유연성을 획득하여, 심각한 재래식 전투를 버텨낼 수 있도록 군대배치시간을 확보하는 사후조치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다분히 擴戰의 가능성이 수반되지만, 擴戰의 가능성은 쌍방간의 희생을 너무 크게 초래한다는 점에서 배제될 것 같다.

그러나, 兩戰線의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蘇聯은 유럽戰線에서 재래식 均衡의 우세를 향유하고 있

으며, 또한 兩戰線時 보급을 담당할 수 있는 內陸路線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戰線에서의 분쟁을 수평적으로 확산시키거나, 페르시아만의 돌발사태에 유용한 美國 군대를 묶어두려는 노력으로 최소한 유럽에 배치된 군대를 동원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美國은 공격이 어디서 개시되는가를 명백히 알기 전까지는 최소한 兩戰線을 동시에 견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전쟁이 兩戰線에서 동시에 발발한다면, 美國은 당연히 유럽戰線에 우선권을 부여할 것이다. 왜냐하면, 유럽戰線에서의 승리는 蘇聯 군사력의 핵심부분을 無力化시킬 수 있을 것이며, 그후 美國이 페르시아만 戰線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역으로, 나토(NATO)가 유럽에서 패퇴한다면, 페르시아만 戰線에서의 美國의 승리는 의미를 전혀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페르시아만에서의 분쟁이 지역적이고 재래적인 분쟁으로 한정된다면, 蘇聯이 최소한 어느 정도의 희생을 무릅쓰고 이란 북부지역을 침공할 수 있음을 가정해야 되기 때문에, 美國은 그러한 경우에 대비한 목표를 명백히 설정해야 한다. 첫번째 목표는 가능한 한 빨리 분쟁을 종식시키며, 蘇聯의 진격을 제한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확전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될 것이다. 두번째 목표는 분쟁이전의 상태를 회복하거나, 분쟁을 막아 蘇聯의 군사행동에 따른 피해를 제한하는 새로운 지역협력을 생성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美國이 이러한 목표를 토대로 수행하게 될 抑止戰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군사작전은 크게 항공후방차단작전(The Air Interdiction Campaign)과 地上軍작전으로 구성될 것이다. 美國이 구상하는 항공후방차단작전은 소련 군대가 이란 북부지역에서 봉착하게 되는 산악지형에 적합한 작전인 데, 이 작전이 蘇聯의 진격을 저지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지만, 蘇聯의 진격을 늦추고, 혼란시키며, 그리고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데는 크게 기여할 것이다.

美國은 이러한 항공후방차단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항공기들을 확보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항공기들이 수용될 수 있는 기지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갖게 될 것 같다. 또한 기지확보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주요 군수품 및 예비품들의 前置, 그리고 확실한 지원보장이 없이는 美國은 항공후방차단작전의 효과적인 수행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美國의 지상군 작전은 항공후방차단작전보다 훨씬 단호한 결의, 까다로운 이해관계, 그리고 고조된 위협을 내포하면서, 蘇聯 군대와의 정면충돌시 美國이 보유한 재래식 군사력의 최대한 투입을 단행하게 될 것이다.

이란 북부지역에 대한 蘇聯의 무력개입을 저지하기 위해 구상되는 이같은 美國의 地上軍 작전은 두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 하나는 가장 눈에 띄는 목표지역인 부셰르(Bushere) 및 아바단(Abadan)지역과 더불어 이란 연안을 따라 散在된 주요 항구들과 비행장들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임무는 처음에는 印度洋에 배치될 美國 해병대에 부여되고, 美國 地上軍의 나중 투입에 연계된다. 다른 하나는 蘇聯軍 진격의 방향과 속도, 地上軍의 반응속도, 그리고 주요 지형에 의해 결정되는 地上軍의 공중투입과 관계된다. 이 임무는 연안으로부터 떨어진 곳에서의 전투를 가능케하는 輕陸軍부대들에게 부여된다.

결론적으로, 이란 북부지역에 대한 蘇聯의 무력개입저지를 목표로 하는 美國 地上軍 작전의 실행가능성은 기본적으로 美國 中央司令部에 이용가능한 地上軍의 숫자와 최소한 地上軍의 일부가 이동하는 속도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VI. 맺는말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페르시아만 지역의 위기사태, 특히 이란-이라크 전쟁의 여파로 초래될 수 있는 美·蘇 초강대국의 군사력 개입은 더 이상 예견치 않은 파국의 상황에서만 선택되어지는 최후의 代案이라고 가정할 수 없다. 그것은 21세기를 지향하는 전인류가 봉착하고 있는 石油現實이 결코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또다른 페르시아만이라고 일컬어지는 中共의 大陸棚 石油, 혹은 남극의 빙하속에 매장된 石油의 규모는 아직껏 명백히 입증되지 못하고 있으며, 설사 막대한 매장규모가 확인된다고 해도, 개발에 따른 문제는 가까운 시일내에 쉽사리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일회적 소모성을 갖는 石油資源을 대신할만한 代替에너지가 현재 전세계 산업국가들의 발전동력이 되고 있는 石油資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석유수급체제의 붕괴에 따른 심각한 석유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아마도, 세계 최대의 확인된 석유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페르시아만 지역은 당분간은 石油現實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비록 1980년대에 들어서 석유수요보다 석유공급이 많아 油價가 단자라까지 내려가는 현상이 초래되긴 했었지만, 이같은 현상은 OPEC가 결집력을 회생시킴에 따라 소멸되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非OPEC 산유국들의 석유공급 능력이 OPEC의 결집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국면에 당도하게 될 때, 오히려 中東石油가 또다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더우기, 공산권 국가들, 특히 蘇聯 및 東歐圈 국가들이 中東石油의 직접적인 소비자가 되려 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自由西方세계의 석유수급체제의 붕괴로 제기되는 진정한 의미의 석유위기가 발생할 경우, 페르시아만 지역의 비중은 절대적으로 부각될 것이다.

따라서, 전세계 확인된 석유매장량 7,066억 배럴(1986년 현재)의 56~57%에 해당하는 3,984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는 페르시아만 지역이 가까운 장래에 전세계 석유소비국들의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이라는 가정도출이 현시점에서는 현실성을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中東石油에 대한 의존이 심한 西歐 및 아시아지역(中東 除外), 그리고 北美지역의 석유매장량이 합쳐서 1,441억 배럴(1986년 현재), 蘇聯, 東歐, 그리고 中共을 포함한 공산권 국가들의 확인된 石油埋藏量이 841억 배럴(1986년 현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전세계 산업국가들이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제3의 석유위기의 징조는 반드시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美國을 포함한 日本 및 西歐 자유세계 선진 산업국가들에 대한 안전한 석유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천명된 美國의 단호한 결의와 中東政治學關係의 근원적인 변화로 초래될 수 있는 蘇聯의 對페르시아만 영향력 강화 정책이 정면으로 충돌될 경우, 페르시아만 지역에서의 美·蘇이 군사충돌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초강대국의 이익보호를 위한 我田引水格의 발상에서 초래되는 어리석은 勢力誇示의 단면일 수도 있다.

그러나, 石油은 단순히 힘의 균형을 와해시키도록 자극하는 動因으로서 보다는, 전세계 인류의 前途에 明暗을 동시에 가져다 줄 수 있는 中間者로서 인식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페르시아만 위기사태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

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진정으로 石油將來에 대해 심사숙고해보는 지혜를 가져와야 할 것 같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 Cordesman, Anthony M. *The Gulf and the Search for Strategic Stability : Saudi Arabia, the Military Balance in the Gulf, and Trends in the Arab-Israeli Military Balance*. Boulder : Westview Press, 1984.
- ✧ Dawisha, Adeed and Dawisha, Karen, ed. *The Soviet Union in the Middle East : Policies and Perspectives*. New York : Holmes & Meier Publishers, 1982.
- ✧ Kanet, Roger E. ed. *Soviet foreign Policy in the 1980s*. New York : Praeger Publishers, 1982.
- ✧ Lenczowski, George. *The Middle East in World Affairs*, 4th ed. London : Cornell University Press, 1980.
- ✧ London, Kurt, ed. *The Soviet Union in World Politics*. Boulder : Westview Press, 1980.
- ✧ McNaugher, Thomas L. *Arms and Oil : U. S Military Strategy and The Persian Gulf*. Washington, D. C :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5.
- ✧ Sella, Amnon. *Soviet Political and Military Conduct in the Middle East*.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81.

- ✧ Han-Ku, Chung. *Interest Representation in Soviet Policy-making : A Case Study of a West Siberian Energy Coalition*. Boulder : Westview Press, 1987.

〈論 文〉

- ✧ Chubin, Shahram. "Soviet Policy Toward Iran and the Persian Gulf," *Adelphi Papers*. No. 157(Spring 1980).
- ✧ _____ . "Gains for Soviet Policy in the Middle East," *International Security*. Vol. 6, No. 4(Spring 1982), pp. 122-152.
- ✧ Hollen, Christopher V. "Don't Engulf the Gulf," *Foreign Affairs*. Vol. 59, No. 5(Summer 1981), pp. 1064-78.
- ✧ Epstein, Joshua M. "Soviet Vulnerability in Iran and RDF Deterent," *International Security*. Vol. 6, No. 2(Fall 1981), pp. 126-158.
- ✧ Reich, Bernard, and Bennett, Alexander J "Soviet Policy and American Response in the Middle East,"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Vol. 1. XIII, No. 2(Fall-Winter 1984), pp. 79-112.
- ✧ Ross, Dennis, "Considering Soviet threats to the Persian Gulf," *International Security*. Vol. 6, No. 2(Fall 1981), pp. 159-180. □

